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MC 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시울코리아 가 함께 응원합니다.

제1413호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野, 송영길 구속에 당혹…총선 앞 ‘돈봉투 수사’ 파장에 촉각

공식 입장 없이 상황 예의주시…“宋, 탈당한 개인의 몸” 선 긋기



입장 밝히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

다”고 말했다.

그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관련해 의원총회 등 내부 논의를 할 생각이 없나?’고 묻자 “해당 의원들의 이름만 거론됐을 뿐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 차원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의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확인된다면 그때 지도부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깊은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다. 한 지도부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사건이 당 전반의 고질적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송 전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일탈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어찌 됐건 당에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기소가 돼서 곧 재판에 들어갈 텐데, 사안들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

으며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 절차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범죄 등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경검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선거 사건은 6개월로 정해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시효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을 나눠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상호 간에 사건의 송치·이송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 송원희 기자

내년 총선 허위선전·금품수수 막는다…검·경 협의체 가동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19일 각종 선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선거 수사 전담 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권역별 14개 지방경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이, 각급 관서별 60개 경찰청과 259개 경찰서가 각각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연락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는 당시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비주류 4인방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는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도망다니지 말고 관련 의원들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솔직하게 들어봐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일찍이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은 밝히고 ‘용서해 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하고 끊고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표가 돈 문제로 구속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무슨 개인 사업도 아니고 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것 아니냐”며 “현직 당 대표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구속까지 할 사안인가”라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사건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공화국이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원희 기자

Photo News



‘천441일간의 사투’ 선별진료소 종료

18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올해 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20일 전국 보건소 등에 선별진료소를 가동한지 1천441일 만이다.

참여연대, ‘명품백 수수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 권리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경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 김은성 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습관적인 당신의 불법소각 소중한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할 때 생기는 크고 작은 불씨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곳까지 날아가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

항소심 “징계의결·처분 모두 위법” 1심 뒤집혀…징계사유는 판단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단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련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적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 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리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

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 감찰조사상 위법 ▲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커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가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이른바 ‘파소할 결심’ 지적에 대해선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 송원기 기자



자녀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울먹인 정경심 “아들 상장, 실제 활동 결과…세상 물정 몰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첫 기소 후 4년여 만에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그는 아들 조원씨의 수료증이나 상장은 실제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어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시에는 몰랐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들이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워 24시간 관리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훨체어를 탄 채 증인석에 앉아 이같이 증언했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정 전 교수는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 다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 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며 “우리 가족은 다 잊었고 다 내려놨다”고 덜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이 재판 주요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들 조원 씨에 대해 자신의 유학 등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타인으로부터 뒤늦게 듣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면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살리는 데 주력하며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 이석호 기자

정 전 교수는 “아이가 극단 선택을 안 하도록 막는 것과 미국 대학 진학을 돋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며 “제가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자라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던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서 재판받고 가족 모두 고생시키거나 반성을 많이 한다”며 “수형 생활 중 깨달은 게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헌수했다.

조원 씨의 출결 상황 허위 인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는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아들이 끓어도(유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출석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다”며 “학교도 사정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너그러운 학교였으며 미국 대학은 생활기록부상 출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선 “아들을 아빠 연구실 한쪽 구석에 앉히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턴십 결과물도 있었다”며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으며 남편은 관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 이석호 기자

김정은, 美본토 핵위협…미 대선 앞두고 도발 더 거세지나

ICBM 정상각 발사 등 가능성…트럼프 재선 기대하며 몸값 끌어올리기 전략 분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참관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해 노골적인 핵 공격 위협을 했다. 특히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더 공세적인 행동으로 미국 등에 맞대응하라고 지시한 만큼 북한의 무력시위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화성-18형 발사훈련을 참관한 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 뒷이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화

성-18형으로 유사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은 또 “우리의 훈들림없는 초강 대응 의지와 절대적 힘을 다시금 똑똑히 시위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

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정은이 ‘초강 대응’, ‘공세적 행동’ 등으로 미국과의 ‘강대 강’ 대립 구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

한이 내년에도 대형 도발을 이어갈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으로선 트럼프가 재선될시 진행될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접하고자 최대한 핵능력을 끌어올리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화성-18형’의 정상 각도시험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전역을 기습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해 트럼프를 핵 군축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화성-18형 발사훈련이 ‘적

대세력의 반공화국 군사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로 규정하는 등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국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북한은 한미가 지난 15일 열린 핵협의 그룹(NCG) 2차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점,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미주리 함의 부산 입항 등을 거론하며 ‘화성-18형’ 발사 이유로 둘러댔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4일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때는 NCG 회의나 미주리함의 부산 입항 전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 점을 거론하며 “북한은 분명 NCG와 무관하게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강만수 기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김부겸 “이낙연 포용해야”…이재명 “백지장도 맞들어야”

DJ 영화 시사회서 만나 대화…金 “더 큰 폭으로 행보해달라”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CGV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 행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런 얘기 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정치적 큰 흐름인가”라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역사를, 그걸 더 큰 물줄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 3명의 연대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화 감상 소감으로 “참 먹먹하고 숙연해진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도 저런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질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화 시작 전 기자들에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척해오신 여러 민주주의의 길을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와 함께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후퇴, 퇴행을 막는 것”이라며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계파 갈등 및 내부 파열

음에 따른 원심력을 차단하기 위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의 연쇄 회동을 추진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이 대표는 김 전 총리가 당부한 ‘더 큰 행보’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영화를 본 감상으로 “흑백 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 다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사회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한화감 전 민주당 대표,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

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의 옆자리에 앉은 권 이사장은 “이 대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의 소중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며 “(나는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DJ와 같은) 그런 과정을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오후 7시에 열리는 시사회에 참석하기로 해 이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 송원기 기자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도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연내 종료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한 조치로,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내년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예정이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 박소희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

與 “서울 편입, 구리 다음 하남 최우선 과천 포함도 논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메가시티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한다.

‘구리 서울편입’ 특별법·메가시티지원법 등 발의

“경기남부-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념도 포함”

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고 “다음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 검토하고 있다”며 “고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했다.

그는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된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평택·오산·화성, 충남 아산·천안·당진·서산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연합의 형태”라며 “메가시티의 개념을 단순한 행정적 통합만이 아니라 경제적 연합도 포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문섭 기자

與, 비대위원장 이번 주말 지명…한동훈 인선안 의견수렴 계속

윤재옥, 내일 상임고문단 회의서 의견 수렴…한동훈 놓고 여론조사도 진행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설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루는데
비우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정치후원금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세법 제126)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이번 주 말까지 지명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중에 의견 수렴을 마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는 윤재옥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되면 임명 절차가 끝난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권 주류는 한 장관을 주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 하지만, 비주류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직후 14일 중진연설회의와 15일 의원총회에 이어 전날 의원·당 협위원장 연설회의까지 참석 범위를 넓히

며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날 연설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안에 대해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 당 원로들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원로와, 또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좀 더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래 끌고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주 중에 하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미 1월 10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비대위원장 인선도 늦어지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봐야 한다. 당의 지도체제 정립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또 “예산이 여의찮으면 예산으로 인해서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내부 상황에 따른 문제로 민생을 쏠리고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사실상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원로들과 회의 후 비대위원장이 결정해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최경준 기자

불법자금세탁한 MZ조폭 등 34명 기소…금송아지 등 200돈 압수

현금·명품 쌓아두고 호화생활…현직 의사도 대포통장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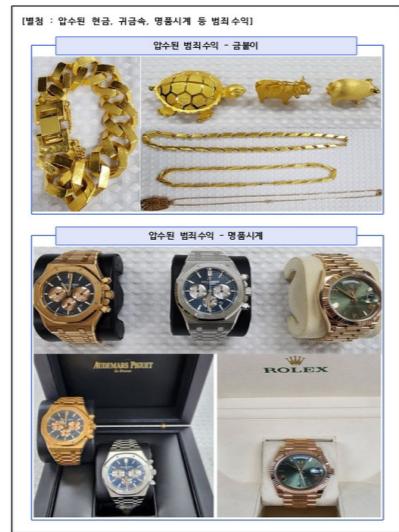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이 가담한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원 34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34명을 기소(구속 5명·불구속 29명)하고,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27)씨 등 5명은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종책의 의뢰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의 불법 자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구속기소 된 B(23)씨 등 29명은 1개 계좌당 월 100만~1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 총 86개를 양도하거나 사용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하던 중 특



불법자금세탁 'MZ 조폭'…금불이·현금 등 압수



압수한 범죄수익…명품가방·명품의류

정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를 벌여 조작폭력배가 개입된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폭들은 대부분 20대로 제4 세대형으로 분류되는 'MZ 조폭'들로 확인됐다.

4세대 조폭은 유통업·도박,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불법자금융, 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으면 가담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번에 구속된 조폭들도 자금세탁 범죄 수익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자택에서는 현금 3억4천500만 원이 금고 등에서 발견됐고, 금송아지 등 금 200여돈, 1억2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이 압수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탈세를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현직 의사 C 씨도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C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가 급증해 수익이 늘어나자 탈세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금 세탁을 맡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종책과 관리자 4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일당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주적하여 박탈하고, 국세청 등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양승민 기자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변호인 "선거 당시 발언 배경·동기 등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인 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배씨는 "저는 제 잘못을 많이 깨달았다.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당시 (선거 국면에서) 제보자나 언론은 피고인이 아닌, 당시 도지사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피고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에 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해 해명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때문에 거기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선거

국면에서 한 말의 배경, 동기, 과정, 결과를 입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심할 만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형사사건의 대전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김혜경 씨와 피고인이 서로 호르몬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죄 증거로 인정할 만한 정도 없다"고 했다.

배씨는 2022년 1월과 2월 당시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

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올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천만원 상당이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2심 선고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

/ 송진영 기자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 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교사의 말투 등 근거로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 공통 결론



웹툰 작가 주호민

다만 그는 A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나"는 물음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는 질문에 B씨는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훈육의 취지였다면 혐의를 부인 한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5일이다.

/ 배영성 기자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끊아먹는 기생충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 기군 브로커

日검찰, '비자금' 아베파 압수수색할듯…“이중장부 관리 정황도”

아베파 비자금 규모 46억→92억 늘 수도…2000년대부터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돼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비자금이 조성되고 조직적으로 관리됐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만간 아베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회계 책임자는 검찰 조사 등에서 아베파 사무총장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이른바 '파티'에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금액을 돌려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회계 책임자는 이는 아베파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인정하며 파벌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쿄지검은 파티 수입 일부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이날 아베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2월 6일 아베파 정치자금 모금 행사

검찰은 이미 지난 주말부터 이번 사건과 연루된 아베파 소속 의원들을 임의로 불러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진술받기 시작했다.

아베파는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넘겨줘 왔으며 계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나 개별 의원 회계처리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베파 의원들이 파티권 할당량 초과

판매로 비자금화한 금액은 2018~2022년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일부 아베파 의원들이 파티권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계파에 보고하거나 개인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중간에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면서 미기재 금액은 5억엔을 넘어 10억엔(약 92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파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와 별도로 파티 수입 총액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해 이중장부를 관리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파티를 연 1회 열고 소속 의원을 통해 기업과 단체에 파티권을 판매해 왔다. 아베파 회계 담당자들은 각 의원 보고와 입금 기록을 기초로 실제 판매 총액을 정리한 자료를 작성했다.

이후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뒷돈 형식으로 의원들에게 돌려준 뒤 이 돈을 제외하고 수지보고서에 기재할 금액을 정리한 자료도 별도로 작성해 비자금을 계속 관리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비자금 조성 기간이 최근 5년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베파 소속 의원 비서는 마이니치에 "정확한 경위나 시기는 알 수 없다"며 2000년대부터 할당량 초과분을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박성호 기자

오인 사살된 이스라엘 인질들, 남은 음식 짜내 'SOS' 썼다

이스라엘군이 실수로 사살한 이스라엘 인질 3명이 남은 음식을 짜내 'SOS' 메시지를 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사건이 벌어진 인근 건물을 수색한 결과 도움을

요청하는 표식이 발견됐다며 이를 공개했다. 흰 천에 히브루어로 "SOS"와 "도와주세요, 인질 3명"이라 쓰인 메시지는 인질들이 남은 음식을 이용해 쓴 것이라고 이스라엘군은 밝혔다.

또 "현장 조사 결과, 인질 3명이 도움

요청 신호가 있던 건물에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리차드 헤트는 이들의 죽음에 관해 조사 중이며, 군인들의 행동은 '교전 규칙 위반'이었다고 인정했다. 하마스에 인질로 잡혀있던 토탕 하임과 사메르 탈랄카, 알론 샬리즈는 지난 15일 가자시티 세자이야에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다.

당시 이들은 상의를 걸치지 않은 상태

였다. 한명은 흰색 상의를 나뭇가지에 걸어 이스라엘군을 향해 흔들었다.

이를 하마스의 유인작전이라고 착각한 이스라엘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성들을 향해 발포하고 '테러범'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장례식이 열린 샬리즈의 형은 동생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버려졌고 사살됐다고 오열했다.

/ 최경민 기자

'바이든 당선=주가 폭락'이라던 트럼프, 활황세에 '부익부' 개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집권 시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주가가 활황세를 보이자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리노에서 지지자들에

증시가 부자들만 더 부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주가 상승을 염으로 자랑해왔으며 지난 대선 기간에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렇지만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지난 주 37,000선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과는 다른 증시 활황세가 바이든 지지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익부' 주장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트럼프는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재앙이 통장잔고를 먹어 치우고 꿈을 앗아가고 있다면서 나라 경제가 시궁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는 올해 90여 차례에 걸쳐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다수의 법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각 주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당내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 권영준 기자

'젤렌스키와 냉각설' 우크라 총사령관 집무실서 도청장치 발견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자국군 총사령관 밸레리 잘루즈니의 집무실 중 한 곳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보안국은 성명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장비는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집무실에서 직접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가 향후 업무에 쓸 수 있는 건물 중 한 곳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 정보에 따르면 발견된 기기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 저장 장치나 원격 오디오 전송 수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기술 장치는 검사를 위해 보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동부와 남부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서방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잘루즈니 총사령관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밸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쟁과 관련한 견해가 엇갈려 관계가 냉각되고 개편 가능성성이 거론돼온 군 최고위층의 하나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지난달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이 전쟁이 러시아 정부에 이득이 되는 소모전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교착상태'라는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노승윤 기자



2024 미스 프랑스로 선정된 이브 질

숏컷 '미스 프랑스'에 시끌 “전통적 미 아냐” vs “다양성 승리”

프랑스 미인대회 우승자 '미스 프랑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승자의 짧은 머리, 상대적으로 덜 굵고 진 몸매를 두고 일각에서 전통적인 여성미의 기준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미스 프랑스 결선에서는 이브 질(20·여)이 우승 왕관을 썼다.

인도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섬 레위니옹 출신의 수학 전공 대학생으로, 참가자들 사이에서 검고 짧은 머리가 특히 눈에 띄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프랑스 최고 미인으로 뽑혔지만, 온라인에선 질의 외모를 두고 의외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질의 우승이 대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다양성이라는 진보적 정체성을 강요하는 '워크'(woke)를 염두에 두고 질을 뽑았다 는 것이다. 워크는 '깨어있음', '각성' 정도

/ 양희진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SAMSUNG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깨끗한 Air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하도급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6개 기업, 공정위원장 표창·10개 기업, 중기부 장관 표창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했다고 중기부가 밝혔다.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이랜드월드 등 6개사는 대금 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은 LG생활건강, LG전자,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본아이에프,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사는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에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의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조현 KT 전무, 우종태 LG전자 책임, 박은희 포스코과장이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연동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관리에 힘쓴 점 등을 인정받아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언

로 활동하고 연동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관리에 힘쓴 점 등을 인정받아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해성디에스, 한국중부발전 등 4개사는 이날 연동제 관리 범시행 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준 사례, 원자재 동향 모

니터링을 위한 사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등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

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해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 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하도급 거래에서의 연동 합의가 2차, 3차 하도급 거래까지 이어지는 등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부처는 지난 2월 로드쇼 개막식 이후 전국에서 157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는 지난 12일 기준 1만154개사로 목표(1만개사)를 넘어섰다. / 최선희 기자



18일 카카오판교아지트서 기자들과 만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왼쪽 두 번째)

카카오 정신아 대표 내정자

“시간이 많지 않다”

카카오 차기 대표로 내정된 정신아(48) 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카카오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 내정자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주재하는 제8차 비상경영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짧은 인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내정자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纱신 TF(전담팀)부터 시작해 크루(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김범수 창업자와 함께 직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정 내정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으로, 취임하면 카카오의 첫 여성 대표가 된다. / 박현욱 기자

네이버는 작년 3월부터 최수연(42) 대표가 이끌고 있어 국내 앙대 플랫폼이 모두 4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아 경쟁하는 구도가 될 전망이다.

정 내정자는 정보기술(IT) 업계에 오랜 기간 몸담으며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특화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정 내정자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선 유금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가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주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 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맹 택시 업계(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기준 3% 이상이던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새 서비스 출시를 골자로 한 개편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 박현욱 기자

대형마트, 설 선물 예약 21일 개시

가성비 선물 확대

약사들의 손에 의해 제조되던 병원 가루약을 로봇이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조하는 시대가 열렸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가루약 자동제로봇(Mini-Dimero)을 도입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가루약 자동제로봇은 이 병원과 일본 유아마 본사가 4년간 연구, 개발을 통해 한국형 모델로 도입했다.

자동제로봇은 의약품의 선택, 측량, 분포 과정 모두를 자동화해 가루약 조제를 진행하는 장비로, 최신 로봇 기술과의 약품 조제 기술을 결합해 자동제로봇으

로 가루약을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제 할 수 있다.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약사도 보호할 수 있다.

이 병원은 알약을 복용하기 힘든 어린 이들이 많은 부산대어린이병원과 식도로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영남권역재활병원이 함께 있어 가루약 복용 환자가 많다. 특히 가루약 조제를 위해서는 조제 대기시간이 길어 가루약을 처방받는 환자들

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 조제로봇 도입으로 환자들에게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루약을 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황은정 약제부장은 “이번 자동제로봇 도입으로 가루약 조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 향상하고 약사의 업무를 조제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더 질 높은 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심현수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633명에 할증보험료 13억원 환급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천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

답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올해 환급 보험료(12억8천만원)는 전년 동기 대비 3억2천만 원(33.3%) 증가했다. 환급 인원(2천633명)과 계약 건수(8천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369명(16.3%), 1천237건(16.5%) 늘었다.

김감원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홍명섭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정착 위해 점검 지속”



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분리 징수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문제 삼기 전에 (분리 징수는) 국민의 권리라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도록 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대상은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다. 평소 TV를 보지 않더라도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는 내야 한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분리 징수 배경에 대해 “(통합징수는) 공영 방송에 대한 일종의 특혜였고 이 부분에

대리기사 운영 대리운전 앱 출시…수수료·사용료 면제

대리운전 기사들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됐다. ICT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는 최근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드라이버 기사용’을 출시했다. 이 앱은 높은 대리운전 운행 수수료와 중복보험료 등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배제하고 ▲ 운행 수수료 0% ▲ 프로그램 사용료 0원 ▲ 대리운전 견당 보험 도입 등 기사들이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스마트 폰에 앱을 다운받아 등록한 뒤 사용하면 된다. 고객용 앱은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만큼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는 지난 3월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 보호와 업계의 불합리한 생태계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전국 조직으로 설립됐다. / 백민정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posco
INTERNATIONAL With POSC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은행 · 카드 · 증권 · 보험
신한의 모든 금융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신한 슈퍼SOL탄생!

HAPPY BIRTHDAY

신한 Super SOL

Congratulations!
Super SOL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 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인천 원도심 달라진다…내년 맞춤형 활성화 사업 박차

인천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18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2024년 도시균형국 주요 업무보고회를 열고 중점 사업 추진계획과 실행전략을 점검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에 대한 연차별 국가공모 참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원도심에 있는 64개 역세권의 여건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3곳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인선 제물포역 인근에는 내년 6월 제

신년 주요업무 보고 이제는 인천시대! 시민체감행장



인천시 2024년 주요 업무보고

물포 스테이션-제이(Station-J)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곳은 스마트업·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와 상권 활성화 차원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내년에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도 전체 구간을 착공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올해 5월 인천 기점~독배로 구간 공사가 시작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독배로~주안산단 구간 도로 개량공사와 하반기 주안산단~서인천나들목 지하도로를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대로 주변 주차장 조성과 경관 개선 사업도 병행하게 된다.

시는 올해 최종 선정한 재개발 후보지 33곳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내년 7월에는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게 된다”며 “제물포르네상스 지역 이외의 원도심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강희철 기자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 전하며

경기도,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내년부터 추진, 1억5천만원 편성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엣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엣터 및 건물 11개 동에 대해 현장 조사와 보존·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선감학원 엣터 보존과 관련한 역사·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마순홍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잊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생활비 지원은 물론 추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한 시설로,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사실이 피해자 조사와 증언, 기록, 발굴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도는 지난해 10월 김동연 지사가 공식 사과하고 올해부터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는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위로금 및 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1분기 123명에서 현재 194명으로 늘었다. 도는 타 시도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 송원기 기자

“재미 넘치는 익사이팅 도시로”…광주 관광공사 출범식

광주 관광공사는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관광 마이스(MICE) 업계와 대학,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FC와 기아타이거즈 선수들, 방송인 전현무·박나래·이장우·양세형·장도연 등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했다.

공사는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마이스 통합 플랫폼이라는 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꿀잼 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경영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영산강 100리 길 Y 프로젝트,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등과 함께 2026년 광주 도시 이용인구 3천

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 사업 구조 조정, 노사 학합 문화 구축 등 경영 자립에 나서

고 사업 다양화와 지역 관광 생태계 확장을 시도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단순히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두 조직이 하나 된 것을 넘어 무한대의 가능성을 펼칠 더 큰 조직으로 탄생했다”며 “문화·예술·스포츠·맛과 의의 도시 광주 스토리를 기반으로 꿀잼 광주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광주 관광 발전을 선도할 커트루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광주를 실현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은정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인구감소 대응계획, 지방이 직접 세운다…첫 ‘상향식’ 계획 확정

89개 인구감소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

이를 토대로 기업지방 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가 마련됐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천억 원씩 투자해 총 3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 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연 2조~3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기본계획의 실효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해가기로 했다.

/ 장수경 기자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이 개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18 부상자회 비대위 “부상자회 특정 임원은 가짜유공자”

5·18 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임시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는 일부 임원에 대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임원은 부상자회 한 회원에게 하위 진술을 요구해 국가 유공자가 됐다”며 “그 대가로 회원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가짜 유공자가 소집하는 임시 이사회는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에 해당 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황일봉 전 회장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이 사회를 무마시키려고 한 거짓말”이라며

/ 오문섭 기자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SAMSUNG

Galaxy S23 FE

FE를 갖는 세상에 없던 구매방식**perFEct 프로그램****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색상과 모델은 국가 또는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erFEct 프로그램] *혜택: KT 단말 약정 24개월 & 69이상 요금제 선택 시 공시지원금 받고 기입 및 개통 시 단말기 대금 84만7천원 중 42만4천원 즉시 할인, 24개월 후 S23 FE 반납 시 잔여 할부금 중 42만3천원 부분 납부 (VAT 포함가 기준) *방법: KTShop에서 주문서 작성 시 'KT폰 구독'-'구독 2년형' 버튼에 체크
*자세한 사항은 KT.com 참조 *perFEct 베네핏은 정해진 기간내 Galaxy S23 FE를 신규 개통 후 쿠폰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개통: 2023년 12월 8일~2023년 12월 31일 신청 및 등록: 2023년 12월 11일~2024년 1월 31일 (개통 D+3일 후 신청 가능, 최초 통화일 기준) *perFEct 베네핏 각 혜택별
쿠폰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봉과: 스타레일] 성장 지원팩: 2024년 1월 5일~2024년 6월 30일 CU 크리스마스 디저트 교환권: 2023년 12월 11일~2024년 1월 31일 CU 디저트 카테고리 50% 할인 쿠폰: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 (최초 등록하면 매월 사용 가능)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쿠폰 다운로드 문의: 삼성닷컴 프로모션 고객센터 (1811-6043, 월~금 09~18시) 쿠폰 등록/사용 문의: 갤럭시 스토어 (APP 내 문의) | CU 고객센터 (1577-8007, 월~금 09~18시)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금이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가 가기 전! 평생 수수료 0원



달콤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 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3-04295호(2023.11.23 ~ 2023.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462호(2023.11.17) [유효기간 2023.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 개인형IRP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5천만원까지(운용회사별 합산) 예금자보호 ※ 개인형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개인형IRP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 유의사항>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원금지급형으로, 투자자 성향은 저위험(안정추구형)으로 분류 ※ 퇴직연금파생결합사채(ELB)는 개인형IRP 계좌에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만 예약매수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자산가격 변동, 발행회사 신용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발행사 IBK 투자증권(AA, 2023.8.29, NICE 신용평가는)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 청약의 권유는(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름 ※ 수익률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 달성 비보장, 투자전 확인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가능 ※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 손실을 초과 가능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스만호, 아시안컵 국내훈련 명단 발표…‘주민규 또 탈락’

26~31일 컨디션 조절 훈련…아시안컵 최종명단은 28일 발표

2023 프로축구 K리그1 득점왕 주민규(울산)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대비해 국내 훈련을 시작하는 클린스만호에 또다시 승선하지 못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18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내 소집훈련에 참여할 대표선수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국내파 위주로 뽑힌 이번 국내 훈련 참가 선수들은 26~31일 서울 시내 호텔에 소집돼 야외 훈련 없이 실내에서 체력 단련 위주로 컨디션 조절에 나설 예정이다.

K리그 선수들은 모두 26일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해외파 선수들은 개인별 귀국 일정에 맞춰 훈련에 합류하기로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아시안컵 참가팀들은 26명의 선수 가운데 23명만 경기별로 등록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해당 경기를 테크니컬



훈련 바라보는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들

시트에 앉아 지켜봐야 한다.

대표팀은 내년 1월 2일 전지훈련 캠프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이동해 최종 담금질에 들어간다. 해외파 선수들은 대부분 아부다비에서 합류한다.

이번 국내 훈련 명단에서 눈에 띠는 점은 올 시즌 K리그1 득점왕에 오른 주민규가 또다시 클린스만 감독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이다.

주민규는 올리 슈틸리케 전 감독 시절인 2015년 동아시안컵 예비명단(50명)에 이름을 옮겼지만 최종 명단에 뽑히지 않았고, 이후 한 차례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성행된 불법 영상 활용 혐의로 의혹이 풀릴 때까지 대표팀에 뽑히지 않게 되면서 팬들은 주민규의 발탁을 예상했지만 끝내

선택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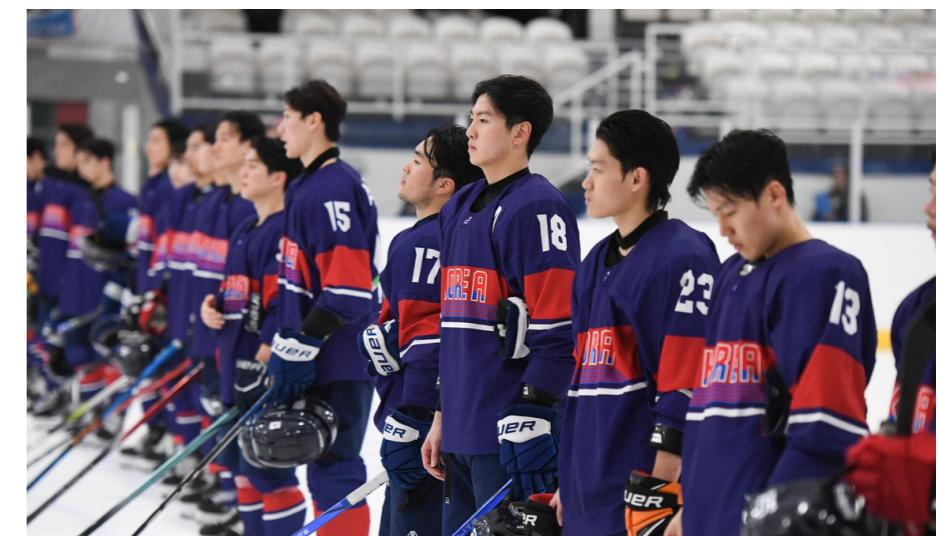
국내 소집훈련에 뽑힌 국내파 선수들은 조현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설영우(이상 울산), 김진수(전북), 이기제(수원), 김주성(서울), 이순민(광주), 문선민, 박진섭(이상 전북)으로 총 11명이다.

이번 명단이 아시안컵에 나설 최종 명단은 아니지만, 그동안 A매치에 소집됐던 국내파 선수 대부분이 포함된 터라 주민규가 다시 발탁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외파는 5명으로 조규성(미트윌란),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이재성(마인츠)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여러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대회 준비를 시작해야 함에 따라 선수들이 적절한 휴식과 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카타르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4부 리그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한 20세 이하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U-20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전승 우승…3부 승격

20세 이하(U-20)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24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그룹 A(4부 리그)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했다.

신의석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덤프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전에서 개최국 영국에 4-3으로 승리해 5전 전승, 승점 15로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대표팀은 내년부터 20세 이하 남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1 그룹 B(3부 리그)로 승격을 확정했다.

1피리어드 13분 1초에 김시환(연세대)이 선제골을 터트린 우리 대표팀은 3분 뒤 동점 골을 내줬다.

2피리어드에는 영국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연속 2점을 내줘 1-3으로 끌려갔다.

수세에 몰린 대표팀은 3피리어드 초반 김시환의 득점으로 반격에 나섰고, 공유찬(연세대)이 동점 골을 터트린 데 이어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김시환은 엠티넷(상대가 골리를 뱉 상황) 골을 터트려 우승을 확정했다. 이날 김시환은 혼자 3골을 집어넣는 맹활약을 펼쳤다.

신의석 감독은 “최선을 다한 선수단과 스태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단 모두가 한 팀이 됐기 때문”이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대표팀은 내년 3부 리그에서 일본,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폴란드와 맞붙는다.

대표팀은 19일 오후 4시 2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 신자웅 기자

프로농구 허웅, 3년 연속 올스타 최다 득표 동생 허훈은 2위…올스타전은 내년 1월 24일 고양에서

프로농구 허웅(부산 KCC)이 3년 연속 올스타 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KBL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된 올스타 펜 투표에서 허웅이 총 33만9천206표 중 16만6천162표를 획득, 동생 허훈(수원 kt)을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허웅은 3년 연속 최다 득표이자 개인 통산 다섯번째 펜 투표 1위를 기록했다.

군 복귀 후 kt의 상승세를 이끈 허훈이 14만1천655표로 2위, 이정현(고양 소노)이 12만8천436표로 3위에 올랐다.

최준용(KCC)은 10만4천600표, 송교창(KCC)이 10만2천95표)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신인 선수로는 유기상(창원 LG)이 유일하게 올스타 24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자밀 위니(서울 SK), 디드리



허웅

로슨(원주 DB)이 올스타에 처음 선발됐다. 올스타전 각 팀 감독은 정규경기 1위 DB 김주성 감독과 2위 LG 조상현 감독으로 결정됐다. 올스타전 팀 구성은 추후 진행되는 드래프트를 통해 감독이 직접 선수를 선별하고 코치진을 구성한 뒤 공개된다.

이번 올스타전은 내년 1월 14일 경기도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다.

/ 오창민 기자

KBO, 음주운전 적발 숨긴 박유연에게 80경기 출장 정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구단에 보고하지 않은 포수 박유연(25)에게 80경기 출장 정지처분을 내렸다.

KBO가 징계를 확정하기 전, 원소속팀 두산 베어스는 박유연을 방출했다.

KBO는 18일 “전 두산 박유연에 대한 상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박유연은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100일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속 구단과 KBO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규약에 따른 ‘면허정지’ 관련 70경기 출장 정지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더했다”고 밝혔다.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

분을 받을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음주운전 발생 후 열흘 안에 소속



박유연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는 ‘기타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박유연의 징계가 ‘출장 정지 80경기’로 정해진 배경이다.

박유연은 2023 KBO리그 정규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10월 말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 한영수 기자

태권도원 “올해 방문객 31만명·매출 50억원 돌파”

태권도진흥재단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자리한 태권도원의 올해 방문객이 31만명을 웃돌고 매출액은 역대 최고인 50억원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재단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추진한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품새 오픈 챌린지, 국기원 연수, 시도태권도협회 전지훈련, 태권도 국제심판 교육 등이 방문객 유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무주군과 함께 진행한 태권도 국제 융합콘퍼런스와 다양한 태권도 행사, 관광 상품도 태권도원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태권도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태권 스테이’, ‘태권도장 가성비 여행 상품’, ‘해외 선수단 태권 체험’ 등이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겨울에는 전국 400여개 태권도 단체의 1만여명이 태권도원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재단 관계자는 “태권도원이 태권도인 성지이자 태권도 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년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국내외 태권도인들이 하나 되는 특별한 이벤트와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진성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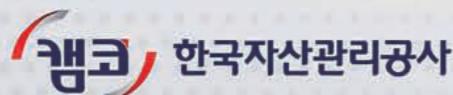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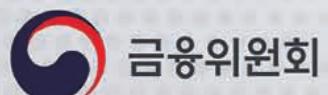
대한민국 으랏차차

캠코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 도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 안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 창출!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힘 모아 돋겠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세븐틴, 일본 5대 돈 투어 마무리…총 51만5천명 동원

“더 큰 꿈 꾸게 해 주셔서 감사…내년에는 꼭 스타디움서 만나자”



그룹 세븐틴

그룹 세븐틴이 지난 16~17일 후쿠오카 폐이페아돔을 마지막으로 일본 5대 돈 투어 '팔로우 투 재팬'(FOLLOW TO JAPAN)을 마무리했다고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세븐틴은 도쿄, 사이타마,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5개 도시에서 12회에 걸쳐 공연을 열어 총 51만5천명의 관객을 모았다.

세븐틴은 후쿠오카 공연에서는 이틀간 8만 관객을 모았다. 멤버들은 '손 오공'을 시작으로 '돈키호테'(DON QUIXOTE), '박수', '울고 싶지 않아' 등 다채로운 히트곡을 줄줄이 선보였다.

세븐틴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캐럿'(세븐틴 팬덤)을 만나니 새롭고, 좋고, 설렌다"며 "오늘 날씨는 조금 춥지만, 캐

렛과 우리의 사랑은 무엇보다 뜨거웠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캐럿과 함께 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일본 5대 돈 투어가 끝나니 아쉽기도 하고, 열심히 해 온 순간들이 뿐듯

불었다.

후쿠오카 첫째 날 공연은 전 세계 66개국 1천500개 이상의 영화관 스크린으로 생중계됐고, 둘째 날 공연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됐다.

세븐틴은 돈 투어와 맞물려 일본 5개 도시에서 도시형 콘서트 플레이파크 '더 시티'(THE CITY)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후쿠오카 타워 전망대에는 세븐틴 멤버들의 등신대가 세워졌고, 세븐틴의 모습이 그려진 항공기가 일본 국내선을 운항했다. 캐널시티 하카타에서는 이들의 신곡에 맞춰 분수 쇼도 펼쳐졌다.

세븐틴은 이달 23~24일 태국 방콕, 내년 1월 13~14일 필리핀 불라칸, 1월 20~21일 마카오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 임윤희 기자



'레벨 문' 화상 간담회. 앞줄 왼쪽이 잭 스나이더 감독. 뒷줄 가운데가 배두나

'레벨 문' 감독 “배두나 쓴 것, 한국 드라마 ‘킹덤’에서 착안”

22일 넷플릭스 공개 앞둔 간담회
배두나 “검도복은 내가 제안”

것을, 저(네메시스)는 무사인데 쓴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의상에 대해 의견을 낸 부분은 바지였다”며 “(처음엔) 움직이기 좋게 하려고 바지가 짧았는데 제가 ‘검을 쓰는 여자니까 검도복처럼 긴 와이드 팬츠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배두나는 네메시스의 캐릭터에 대해선 “파트 1에는 안 나온 네메시스의 이야기가 있다”며 “(내년 4월 공개될) 파트 2를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무엇 때문에 복수하고 싶고, 숙죄하고 싶고,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지 나온다”고 했다.

‘레벨 문’은 22일 정오부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먼 미래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우주의 압제자 발리사리우스에 맞선 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다. 주인공 코라(소피아

부텔라 분)가 네메시스를 포함한 전사들을 이끈다.

부텔라는 알제리 출신이다. 스나이더 감독은 출신 지역이 다양한 배우들을 통해 폭넓은 문화적 스펙트럼을 펼쳐내려고 했다고 한다.

/ 김채원 기자

DJ 전 대통령 다큐 ‘길위에 김대중’

광주서 19일 시사회, 김대중 전 대통령 일대기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18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영화 광주지역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광주 공추위)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길위에 김대중'이 내년 1월 10일 개봉된다. 개봉에 앞서 제작사인 명필름은 19일 오후 2시 광주 유스퀘어 CVG에서 VIP초청 시사회를 여는 데 이어 오후 7시 같은 극장에서 후원자 초청 시사회를 열 예정이다.

영화 '길위에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김 전 대통령의 삶을 그렸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국민에 대한 믿음을 염불 수 있다.

특히 1980년 '서울의 봄'을 알렸던 김 전 대통령이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 과정도 볼 수 있다.



‘그때 그 사람들’과 ‘남산의 부잣들’,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등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들과도 김대중의 삶이 극적으로 겹친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을 받아들이는 과정 등이 담김 미공개 자료도 볼 수 있다. 제작진은 1천700시간에 달하는 영상 자료를 확보해 5개월간 검토했으며 김대중도서관에 보관 중이던 오디오 자료도 두 달간 정리하는 등 자료 확인에만 7개월이 걸렸다. 이 영화는 김대중주모사업회가 지난 2013년 기획했으며 당시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었던 이희호 여사의 허락을 받아 제작에 착수했다.

/ 박현지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DB금융네트워크

DB손해보험 DB생명 DB금융투자 DB저축은행 DB자산운용 DB캐피탈